

민자당, 부가세 영세율 적용 정기국회에서 처리 방침

— 민자당, 축산생산자단체 초청 간담회서 밝혀

취재: 박진규 기자

민자당은 지난 6월 28일 오후 11시 30분 서울시 충정로에 소재한 종근당 빌딩 대회의실에서 본회를 비롯해 낙농육우협회·양계협회·축협중앙회 등 축산물 생산자단체 임원 100여명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자당에서 김영삼 대표최고위원, 김용환 정책위의장, 정창화 국회농림수산위원장, 정일영 의원, 최기선 의원 등 민자당 의원들과 명의식 축협중앙회회장, 본회 전동용회장, 이운우 낙농육우협회회장, 신흥중 양계협회회장 등 생산자단체 회장과 임원 등이 참석하여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여당의 대응책에 대해 집중 논의가 있었다.

본회 문승현 이사(서산태안지부장)는 인사말에서 「작금의 돼지고기 상승은 지난날 18개월간의 돼지고기 폭락으로 인해 양돈인 1/3의 도산으로 인한 당연한 보상이며, 이를 빌미로 특정 육가공업체에 이익을 주는 돼지고기 수입허용조치는 양돈농가의 숨통을 조이는 처사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입축산물의 경쟁을 위해 배합사료 등 축산원자재의 관

세·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축산농가에 대해 최대한의 금융지원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문이사는 「정부가 지난 5월 25일 돼지고기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도 28일 이를 다시 번복,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될때까지 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해 양돈농가들에게 불안과 불신감을 조장했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축산농가에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낙농육우협회 이운우 회장은 「농림수산부에서 우유·축산물 수입권을 보사부에 빼앗겨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에서는 우유를 수매하는 대신 축산물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보사부에서 농림수산부로 이전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회장은 「축산물 수입개방이 이대로 계속되면 농촌은 망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정부·여당의 소신있는 정책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은 「양축농가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제하면서, 「양축농가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점들



을 정책 결정에 최대한 반영시켜 농촌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김용환 정책위의장은 답변을 통해 「양축농가의 문제점으로 축산자금 지원 확대 공급에 관한 문제, 수입개방에 따른 정책에 관련된 사항, 배합사료 등 축산원자재의 관세·부가세 영세를 적용 문제, 우유 적체 문제, 농림수산부·보사부·재무부·경제기획원 등 각 부처간의 업무소관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용환 정책위의장은 「축산물의 수입은 제한적인 수입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 축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수입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말하고, 「배합사료 등 축산원자재에 관한 관세·부가세 영세를 적용에 관한 법률개정도 이번 정기국회때까지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정창화 국회 농림수산위원장은 「축산문제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유통구조의 취약성으로 매년 악순환이 계속되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때 자조금 조성 문제를 발의시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당-정간, 각 부처간에도 긴밀한 협조 관계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본회 전동용회장이 한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자격으로 나와 축산전반에 대한 고충과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축산이 나아갈 정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본회에서는 노영한 전무이사를 비롯, 임원 15명이 참석해 돼지고기 수입허용 즉각 철회, 축산원자재에 대한 관세·부가세 영세를 적용 축산업의 자금 확대 지원, 유통구조의 개선, 축산물 가격안정법 실시 등에 대해 건의했으며, 양돈산업 지원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조진형, 최상백, 이명복, 기정도 등 4명의 본회 부회장과 노영한 전무이사, 김상호(제주도), 조옥봉(경상북도), 김해수(강원도), 이상구(충청남도), 김태환(전라남도) 등 각도 협의회장, 문승현(서산·태안지부), 성정표(울산·울주지부), 최채우(목포지부) 등 지부장들이 참석했다.